

러시아 경제·에너지 동향 (2022.8.25.~9.14.)

<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, 2022.9.15.>

1. 경제동향

가. 2030 러 경제 발전 시나리오 마련 및 제재 상황에서 주요 정부 과제 제시

-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「2030 러 경제 발전 시나리오」를 마련(일반 미공개)하여 '제재 下 경제정책 기본 방향 전략세션'에서 보고함(8.30)

- 동 문서는 새로운 제재 상황에서 △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, △경기 둔화를 극복해서 △2024년 지속가능한 성장 트랙에 도달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됨 (* 레셰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언급)
- 현재 소비·투자가 지탱해주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인 경제추이가 나타나고 있지만, 제재 상황에서 풀어야할 주요 과제로는 ①교통·물류 인프라 구조조정, ②수출입 네트워크 변경, ③수입대체 사업 지원, ④디지털화 및 국산 장비·S/W 기반 기술 주권 확립, ⑤경제·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 등이 제시됨
- 전략세션을 주재한 미슈스틴 러 총리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및 금융시스템 전반의 종합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

나. 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7월 50.3 → 8월 51.7로 개선

- 러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7월 50.3 → 8월 51.7로 개선되어 올 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(* S&P Global 발표)

[2022년 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추이]

구분	2022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PMI	51.8	48.6	44.1	48.2	50.8	50.9	50.3	51.7

- 내수 개선 및 고객 유치 영향으로 신규 주문이 빠르게 늘어서 2019.4월 이래로 신규 주문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
- 한편, 수출 주문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
- 물류·공급난이 지속되고는 있지만, 원료·부품 공급기간과 생산원가 상승폭이 올 2월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음
- 8월 기업 기대심리는 주문 확대·내수 개선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높았으나,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사업전망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다. 러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7월 54.7 → 8월 49.9로 급락

- 러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7월 54.7 → 8월 49.9로 하락하면서 경기위축 국면으로 전환됨 (* S&P Global 발표)

[2022년 러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추이]

구분	2022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PMI	49.8	52.1	38.1	44.5	48.5	51.7	54.7	49.9

- 8월 서비스업 생산량은 유지됐으나, 소비자 구매력 저하 및 제재 영향으로 2개월 간 뚜렷했던 생산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, 내수는 견조한 반면,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
- 재료비·임금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공장출고가도 소폭 인상되었으며, 7월에 소폭 증가했던 종업원 수는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8월에는 감소함
- 기업의 기대심리 관련 경기 안정과 내수 개선 기대감은 여전했지만, 소비자 구매력 저하에 따른 사업 자신감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

라. 8월 러 신차 판매량, 62.4% 감소 (1-8월 누적 기준 60.7%↓)

○ 8월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41,698대로 전년 동월 대비 62.4% 감소했으며, 1-8월 누적 기준 41만 대 판매로 전년 동기 대비 60.7% 감소함 (*9.4차 유럽비즈니스 협회 발표)

- 올해 판매 감소폭이 가장 컸던 5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83.5% 감소했으며, 이후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음

- 생산 재개된 라다 브랜드의 일부 모델들(Granta, Niva Legend, Niva Travel)의 8월 판매가 정부의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프로그램 덕분에 회복되었으며, 8월 중국 하발(Haval)차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26% 증가하는 등 중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함

- 한편, 6~8월 러시아 개인의 독일·일본·한국산 중고차 수입이 전년 대비 1.5배 증가하는 등 중고차 판매는 확대됨

마. 1-8월 기준 러시아 항만 물동량, 총 5억5,330만 톤으로 0.1% 증가

○ 1-8월 누적 러시아 항만 물동량은 총 5억5,33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1% 증가했으며, 건화물 물동량은 2억6,090만 톤으로 4.9% 감소한 반면, 액체화물 물동량은 2억9,240만 톤으로 4.9% 증가함 (*9.12차 연방해운항만청 발표)

- 극동 항만 물동량은 건화물 1억 170만 톤(1.4%↑), 액체화물 4,930만 톤(0.8%↓) 등 총 1억 5,100만 톤으로 0.7% 증가

- 북극해 항만 물동량은 건화물 1,850만 톤(4.4%↓), 액체화물 4,670만 톤(8.2%↑) 등 총 6,52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.3% 증가

- 카스피해 항만 물동량은 370만 톤(25.3%↓), 발틱해 항만 1억 6,350만 톤(1.3%↓), 아조프·흑해 항만은 전년 수준인 1억 6,990만 톤을 유지함

바. 1-8월 기준 러시아 철도 화물수송량, 8억2,050톤으로 3.4% 감소

○ 1-8월 누적 러시아 철도 화물수송량은 8억2,05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

3.4% 감소했으며, 화물수송실적은 1조7,539억 톤km로 0.7%증가함 (*9.1차 러 철도공사 발표)

- 8월 당월 철도 화물수송량은 1억36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5% 감소했으며, 화물수송실적은 262억 톤km로 0.2%증가

- 1-8월 누적 품목별 철도 수송량 : 석탄 2억3,220만 톤(전년 동기 대비 5.7%↓), 석유·석유제품 1억4,270만 톤(0.1%↑), 건축자재 8,860만 톤(3.2%↑), 철·망간 광석 7,740만 톤(3.9%↓), 철 금속 4,550만 톤(0.6%↑), 비료 4,070만 톤(5.9%↓), 목재 2,270만 톤(21.4%↓), 시멘트 1,720만 톤(4%↓), 곡물 1,400만 톤(10.2%↓), 비철 금속 1,240만 톤(6.8%↓), 코크스 690만 톤(9.9%↓), 철 스크랩 87만 톤(19.6%↓) 등

사. 1-8월 러-중 교역액, 1,172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31.4% 증가

○ 1-8월 누적 러-중 간 교역액은 1,172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31.4% 증가했으며, 중국의 對러 수출은 442.6억 미불로 8.5% 증가했으며, 수입은 729.5억 미불로 50.7% 증가함 (* 중국 세관총국 발표)

※ 1-7월 러-중 교역액, 977.1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29% 증가

- 러시아의 對중 주요 수출 품목은 화석연료로 금액 기준 전체 수출의 68%를 차지했으며,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·장비, 전자제품, 차량, 화학 제품으로 나타남

[2022년 러-중 월별 교역 추이]

구분 (단위: 억 미불)	2022.1월	3월	5월	7월	8월
중국의 대러 수출	73.7	38.2	43.2	67.7	80 (26.7%↑)
중국의 대러 수입	77.4	80.2	103.6	100.2	112 (58%↑)
중국의 대러 무역수지	-3.7	-42.0	-60.4	-32.5	-32.0

* 출처 : 중국 세관총국 발표

※ 2021년 양국 교역은 1,400억으로 36% 증가했으며, 올 상반기에만 이미 30% 증가하는 등 조만간 교역이 2천억 미불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(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의 면담(9.7) 계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)

아. 철도 카세트 베어링 부족에 따른 개량형 화차 공급 지연 및 석탄 수출 차질 우려

- 카세트 베어링 부족으로 8월 개량형 철도 화차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, 관련 구형 화차 이용 시 10만 톤의 석탄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, NTK측^{*)}은 9월에도 9천개의 개량형^{**)} 화차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(포포프(S.Popov)NTK 화차 담당 국장 발언)

^{*)} 러시아 석탄채굴기업 수엑(Suek)과 비료생산기업 유로힘(Eurokhim)의 철도 운송담당 업체

^{**)} 기존 구형 화차가 23.5톤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 성능 개량을 통해 25톤 운반이 가능

- 그동안 개량형 화차 베어링은 전량을 수입^{*)}해 왔으나,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입이 중단된 상황임

^{*)} 미국의 Amsted rail 및 유럽 업체 등 3개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

- ※ 러시아 교통부는 2021.1.1부터 러시아 모든 화차에 대해 롤러 베어링에서 카세트 베어링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한바 있음

- 러시아 업체 EPK그룹^{*)}이 국내 생산에 돌입하면서 올해 95,000개를 공급할 예정이지만, 여전히 러시아 전체 올해 10만개 베어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중국산 베어링에 대한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이나 10월 초에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

^{*)} 러시아 베어링 제조 전문 업체

- 관련, NPK측은 중국산 철도 카세트 베어링에 대한 10% 관세(반덤핑 관세의 경우 41.5%) 면제 시 매월 3만 개의 베어링 공급이 가능한 바, 6개월간 수입관세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

- (산업통상부 입장) 러시아에 연간 19만 개의 카세트 베어링이 필요하며, 상반기 10.5만 개가 생산된 바, 잔여 물량은 국내 생산 및 우호국으로부터

터의 수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, 수입세 면제 시 러시아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들의 점유율이 30%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

2. 에너지동향

가. 1-8월 누적 우랄유 평균가, 배럴당 82.13미불로 26.2% 증가

- 올 1-8월 누적 우랄유 평균가는 배럴당 82.13미불로 전년 동기(65.10 미불) 대비 26.2% 증가 (*9.1자 러 재무부 발표)

- 8월 당월 우랄유 평균가는 배럴당 74.73미불로 전년 동월(68미불) 대비 10% 증가함

※ 러시아 석유생산량은 7월 하루 1,113만 배럴 →8월 하루 1,096만 배럴로 17만 배럴 감소 (9.14자 국제에너지기구(IEA) 발표 자료)

나. 가즈프롬社, 1-8월 누적 가스 생산 14.6% 감소 및 수출 37.4% 감소

- EU의 탈탄소정책·장기계약 거부 등 이유로 1~8월 EU의 가스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~30bcm 감소하였으며, 관련 유럽 가스 거래소 공급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석유가스분야 노동자의 날 기념 가즈프롬 사내 협의회 개최 계기 밀러 회장 언급함

- 1~8월 가즈프롬社는 288.1bcm(전년 동기 대비 14.6% 감소)의 가스를 생산했으며, 82.2bcm(전년 동기 대비 37.4% 감소)을 수출했고, 對중 수출은 60% 증가함

- 밀러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△유럽가스공급시스템과 아시아가스수송시스템의 연결, △중국 공급 위한 극동 가스관^{*)}을 통한 부설 설계 작업 착수, △시베리아 힘(Power of Siberia) 2 가스관을 위한 ‘소유즈 보스톡 지선(몽골 경유 구간)’ 가스관 착공 계획이라고 밝힘

^{*)} 사할린~하바롭스크~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기존 가스관을 중국으로 연장하는 사업

다. 1-7월 누적 기준 러시아의 對중 전력 수출 70% 증가

- 중국의 폭염과 전력난 관련 러시아의 對중 전력 수출은 1~7월 누적 기준 26.5kWh(1.25억 미불)로 전년 동기(15.5kWh, 7320만 미불) 대비 70% 증가 (*중국 세관총국 발표)
- 러시아는 중국 이외에도 카자흐스탄, 조지아, 몽골로의 전력 수출을 늘렸지만, EU 수출 중단으로 전체 수출은 감소함**
- * 러 전력공사(Inter RAO)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력 수출 자료를 미공개 전환했으며, 2021년 기준 러시아의 전력 수출은 전체 38억 kWh(1.8억 미불)임
-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수출은 53%, 조지아 162%, 몽골 49% 각각 증가했으나, 러시아 전력 수출의 60%를 차지한 핀란드와 발틱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이 5월말 전면 중단되면서 7월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함

라. 토탈, 노바텍에 테르네프테가즈(Terneftegaz) 지분 49% 매각

- 프랑스 에너지기업, 토탈(Total Energies)은 테르네프테가즈(Terneftegaz) 지분 49%를 합작사인 노바텍에 매각키 위한 계약을 체결(8.26)했으며, 러시아 당국과 푸틴 대통령의 허가를 득했다고 발표함(8.26)
- * 프랑스 르몽드紙는 테르네프테가즈에서 생산된 연료들이 러시아 공군의 항공유로 공급되고 있다고 토탈을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(8.24)
- 토탈과 노바텍은 테르모카르스토보예(Termokarstvoye) 산지 개발에 들어간 토탈의 상당 투자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
- 현재 토탈은 노바텍 지분 19.4%, 야말 LNG 지분 20%, 북극 LNG2 지분 10%를 보유하고 있으며, “에너지.연료 및 금융분야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(제520호)”관련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만큼, 이들 사업 지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. 끝.